

해방기 민족문학이라는 이념과 인민대중의 호명*

— 김송의 문학 활동을 중심으로

오 태 영**

[국문초록]

해방기 한국 근대문학은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 민족문학이 되어야 했다. 당시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다양한 정치 집단에 의해 민족 개념이 분기하고 있었고, 각종 문학단체가 결성됨에 따라 다채로운 민족문학론이 개진되었다. 하지만 이들 문학단체들의 활동은 대체로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의 민족문학의 모색으로 수렴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송은 『백민』을 창간하여 우파 민족주의 담론을 형성하는 장치로 활용하는 한편, 그곳에서의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의 문학적 지향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의 문학 활동은 해방

* 이 글은 2015년 9월 19일 한성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어문학회 82차 전국학술대회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장에서 대중, 교양의 문제>에서 발표한 「이데올로기 형식으로서의 서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서강대학교 공임순 선생님과 자료 획득에 도움을 주신 연세대학교 임유경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주제어: 해방, 민족문학, 교양, 인민대중, 이데올로기
liberation, national literature, refinement, people, ideology

기 계몽의 대상으로 상정된 인민대중이 세대, 계층, 지역, 젠더 등에 의해 분화되어 있었음에도 그들을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 호명하면서 단일하고 통합된 존재로 회수하는 당시의 정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때 호명은 인민대중을 교양하거나 성장시켜 민족적 주체로 갱신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문학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하층민들이 민족국가 건설에 조용해 새로운 자기를 주조하는 성장의 내러티브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성장의 내러티브는 내적 자기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고, 이를 통해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당시 인민대중의 성장 불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방과 문학, 교양되는 대중

1945년 8월 15일 제국 일본의 패전과 식민지 조선의 해방은 근대 한국의 위상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20세기 전반 제국-식민지 체제 내 식민지 지방으로서 위상을 부여받았던 근대 한국은 이제 국민국가(nation-state)로서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했다. 특히 식민지 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제국 일본을 정점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구성하는 하나의 지방으로 위치 지어졌던 식민지 조선은 과거 식민의 경험과 기억을 청산하고 조선 민족을 구심점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했다. 이때 한국 근대문학 또한 ‘식민지 조선문학’으로서의 위상을 탈각하고 국민국가 건설에 조용해 민족문학으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재정립해야 했다. 즉 한국문학은 과거 식민지시기 민족문학으로서의 근대문학 성립의 좌절을 극복하고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민족문학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학사 서술에서 해방기 한국문학은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에 기초한 문학과 정치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었다. 이는 해방 직후 좌우익 헤게모니 투쟁 과정 속에서 문학자들의 문학단체 결성과 활

동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좌익 계열의 대표적인 문학단체는 조선문학가동맹인데, 1945년 12월 13일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로예맹이 조선문학동맹으로 결집하고, 이후 조선문학가동맹으로 개칭한 뒤 임화와 이태준, 김남천 등을 중심으로 기관지 『文學』을 발간하였다. 이 조선문학가동맹은 ‘민족문학’을 내세우는 한편, 창작방법으로 진보적 리얼리즘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봉건제 타파와 시민혁명을 지향한 ‘인민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성격을 지녔다. 한편, 우익 계열의 대표적인 문학단체는 중앙문화협회를 확장하여 1946년 3월 3일 결성한 전조선문필가협회였는데,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영화, 언론, 출판 분야를 망라한 지식인 단체였다. 이 전조선문필가협회 산하 문학단체가 1946년 4월 4일 만들어진 조선 청년문학가협회로, 그들이 내세운 강령은 자주독립축성에 문화적 헌신, 민족문학의 세계사적 사명 완수, 진정한 문학정신 옹호 등이었다. 삶의 구경적 형식 또는 원형적 인물의 탐구를 내세운 김동리, 순수시를 주장한 조지훈, 생리적 문학론을 개진한 조연현 등이 주축 인물로, 그들의 문학론은 ‘민족주의 민족문학론’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기영, 한설야 등이 주축이 되어 1946년 3월 25일 결성된 북조선 예술총연맹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예술문화의 수립을 첫 번째 강령으로 삼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계급성, 인민성, 당파성을 골자로 한 ‘당파성 민족문학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

여기에서 해방 이후 각각의 문학단체 및 문학자들이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민족문학’의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 ‘민족’ 담론이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기능하고 있었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해방기 담론장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던 ‘민

1) 이에 대해서는 김윤식·정호웅(2000), 『한국소설사』, 파주: 문학동네, pp. 313-338과 김윤식(2006),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p. 3-47 참고.

족'은 헤게모니 투쟁의 출발점이자 민족국가 건설 과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한 결과였다.²⁾ 물론 민족이라는 기표에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에 기초한 근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성을 보편적 인간성으로 등치시켜 '인간-민족'을 기획하거나, 자본주의적 질서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근대를 극복하고 이상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계급의식에 기초한 무산자로서의 민족 즉, '전위 계급-민족'을 구상하기도 하는 등 민족 개념은 근대 극복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근대 속에서 근대에 맞서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편적 인간이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민족으로 호명하기도 하였고, 친일 잔재 청산과 봉건주의 및 국수주의의 타파를 위한 새로운 문화 건설의 목표 속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르주아를 포함해 '인민-민족'으로 호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민족 개념의 분기에도 불구하고 해방기 "민족 논의는 국가를 건설하고 운영해나갈 주체로서 하나로 모아지는 주권체"의 성립으로 귀결되었다.³⁾

이 글에서는 해방기 민족 개념의 분기나 민족문화 개념이 가지고 있었던 다층적인 의미와 양상에 주목하기보다는, 민족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제시되면서 어떻게 인민대중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는지, 그리고 그때 인민대중의 호명을 통해 성립해간 민족문화가 역설적으로 인민대중의 '말'을 소거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1946년 2월 8일과 9일에 걸쳐 개최된 전조선문학자대회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패배와 세계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해 "新文學運動開始以來의 全過程에 對한 하나의 決算인 同時에 八月十五日以後의 文學的試驗及實踐에 對한 하나의 總決

2) 배지연(2013), 「해방기 '민족'이라는 기호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임화의 '민족', '민족문화'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5, 현대문학이론학회, p. 171.

3) 발필현(2010), 「해방기 문학 비평에 나타난 민족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26-127.

算”⁴⁾을 하는 자리였다. 그리하여 제국·식민지 체제가 식민지 조선의 근대문학에 대한 청산이자 해방 이후 새롭게 건설될 민족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는 민중의 민주주의적 교육을 위해 문학적 창조력을 함양하는 동시에, 문학의 대중화 사업 속에서 특히 아동문학과 농민문학을 육성·발전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시 문학자들의 ‘민중’에 대한 시선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즉, 민중은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교육의 주체는 문학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위계화된 구도 속에서 문학자는 개별적 주체로, 민중은 단수화된 복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소위 ‘나’와 ‘너’의 구도가 아니라, ‘나’와 ‘너희들’(또는 ‘우리’)의 구도가 다시금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때 ‘우리’는 지식인·문학자 등 호명 주체의 호명 방식에 따라 다르게 명명되고 있었다. 해방 직후 가장 많이 호명되었던 ‘인민’은 좌우파 양측 모두에서 민주주의 실현 주체인 ‘People’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는데, 좌파의 경우에는 국가 건설의 주체인 통일전선 주체 전반을 지칭했던 것에 비해, 우파의 경우에는 ‘국민’의 함의에 가까웠다. 또한, ‘시민’은 좌파에게는 반동적 부르주아 개념에 가까웠던 반면, 우파에게는 정치적 의미가 소거된 ‘일반인’의 개념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단정 수립 이후 ‘인민’ 개념은 북한의 언어로 정리되었고, 남한에서는 ‘국민’이라는 개념어가 전면에 내세워지게 되는데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란 개념으로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과는 그 의미가 달랐다. 한편, 당시 ‘군중’은 좌파들에게 정치적 주체의 집합 개념이었지만, 우파에게는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공포의 대상으로 격하되었다. ‘대중’ 역시 등장했지만 정치적 주체라기보다는 일반인의 단순 집합체라는 의미가 가까웠고, 4.3사건과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군중’은 ‘폭도’로 치부되었으

4) 朝鮮文學家同盟 中央執行委員會書記局(1946), 『序』, 『建設期的 朝鮮文學』, 서울: 白楊堂.

며, 미군정과 정부의 이념에 동의하는 자만이 ‘국민’이 될 수 있었다.⁵⁾

이와 관련해 해방 이후 지식인들의 논설이 당시 인민대중의 ‘지침서’ 이기를 자임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단적인 예이지만 박헌영의 『조선 인민에게 드림』(1946)의 간행사에서 강문석은 “조선 무산계급의 최고지도자이며 조선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박헌영 동지의 논문과 담화는 조선 근로인민의 당이며 민족의 당이자 애국의 당인 조선공산당의 옳은 노선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우리 조선 삼천만 민족의 행동의 지침이며 민주주의조선 건설을 보장하는 유일한 진로인 것이다.”⁶⁾라고 하였고, 이강국의 『민주주의 조선의 건설』(1946)을 편집한 정진태는 이 책이 “현실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체적 지침”이 된다면서 이강국의 논의는 “민중 자체에 뿌리박은 것으로서 민중으로부터 배양된 것이다.”⁷⁾라고 하였다. 당시 ‘인민’과 ‘민중’을 향한 정치적 노선과 강령, 지침 등이 범람하고 있었던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민대중을 향해서 발화되는 말이 소위 그들을 교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교양은 지도자/인민대중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새삼 주목된다.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해 ‘말’이 통제되고 독점되었던 제국-식민지 체제의 붕괴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말이 소수에 의해 독/과점되었음을 의미하고, 그런 점에서 인민대중의 정치·문화적 지위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해방은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된 말의 해방이자, 소수자의 특권처럼 여겨졌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인민대중에게도 허락하는 것이었

5) 이에 대해서는 박지영(2014), 「복수의 ‘민주주의’들—해방기 인민(시민), 군중(대중) 개념 번역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85,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pp. 49-89 참고.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단정 수립까지를 논의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치적 주체의 집합체로서의 의미로 ‘인민대중’의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6) 박헌영(2008), 『조선 인민에게 드림』, 파주: 종합출판 범우(주), p. 5.

7) 이강국(2013), 『민주주의 조선의 건설』, 파주: 종합출판 범우(주), p. 12.

다. 그야말로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말들의 향연이 펼쳐지게 되었던 셈이다. 세대, 계층, 젠더, 지역 등에 따라 말하는 입들은 이합집산의 양상을 보였고, 그들 안에서도 다양하고 이질적인 말들이 경합하는 형국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의 향연은 탈식민-냉전 체제 형성기라는 정치적 전환기에 직면하여 헤게모니 투쟁의 양상을 보였고, 헤게모니 투쟁의 핵심에는 대체로 민족국가 건설 주체의 자리를 점유하려는 욕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금 말할 수 있는 자와 말할 수 없는 자 사이의 위계화가 조장되었고,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인민대중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갔다. 해방 이후 민족국가 수립과 민족문학 건설의 기치 아래 사슬에서 풀린 말들은 다시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셈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 호명되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처럼 보이는 하층민들의 발화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했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김송(金松)의 문학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물론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과 민족문학의 성립에 관해서는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문학자들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송은 잡지 『白民』을 주재하는 한편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면서 자기 나름의 민족문학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었다. 이는 해방기라는 체제 전환의 과정 속에서 담론 구축의 장치로서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그곳에서의 창작활동을 통해 ‘문학의 정치화’를 도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방기 한국문학의 특징적인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는 해방이라는 사건이 한 문학자로 하여금 국가주의적 정치 질서에 기초해 문학의 방향을 모색하게 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의 어떤 변곡점을 암시한다. 따르는 해방기 김송의 문학 활동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민족문학 건설의 이념이 어

떻게 계몽의 주체와 대상을 구획지어가면서 자기 구성의 내적 논리를 만들어갔는지 그 단초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김송과 『백민』이라는 실험실

해방 이후 인민대중에 대한 계몽적 주체로서의 김송의 자기 정립의 의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1945년 해방 직후 그가 편찬해 출판한 『百萬人의 敎師 : 해방된 조선민중의 계몽을 위하여』의 서문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김송은 제국 일본의 통치 아래에서 조선인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했고 문자가 있어도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 뒤 조선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게 된 상황, 특히 학생들이 조선어를 읽고 쓰지 못하는 현상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이 책의 목적이 한글을 가르치는 동시에 조선의 지리와 역사를 알게 하고, 나아가 사회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한글(朝鮮文字)>, <헤는법(數量)>, <회화(會話)>, <지리역사(地理·歷史)>, <노래와민요(唱歌·民謠)>, <바침> 등의 항목을 두어 각각을 설명하는 한편, 정치, 경제, 종교, 철학 등의 상용어에 관한 해석을 덧붙였다.

이 소책자는 언어와 역사, 지리 등 해방 직후 조선의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들의 발간이 범람했던 현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해방 직후 정치적 상황에 대한 김송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三千만민중은 일절의 사리(私利)와 편견(偏見)을버리고 오로지 대조선건설(建設)을위하여 모다 한몸이되어서 혹은 산업에 혹은 과학에 혹은 문화의 발전에 전심전력을 기우려 세계일류의 평화와 행복에 이바지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다.”⁸⁾ 이러한 목소리는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레토릭에 해당하지만, 바

로 그 해방 직전까지 식민지 조선의 도처에도 들려오던 ‘멸사봉공’, ‘직역봉공’, ‘대동아공영권 구축’, ‘세계 신질서 건설’ 등 전시총동원 체제의 담론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물론 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해방 조선의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문법과 논리가 제국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문법과 논리를 닮아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 해방 전후 연속성에 주목하여 소위 제국적 주체가 민족적 주체로 전신해간 과정의 자연스러움은 이미 잘 알려졌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단절’적 감각에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연속’의 정치적 무의식만이 아니다. 그러한 정치적 무의식이 다음의 구호와도 같은 목소리에 의해 그 자체로 자명한 어떤 것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군님이 불암산 아래에서 대조선을 건국한이래 사천이 백칠십팔년이란 긴역사를 가진 백의민족(白衣民族)이다. 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때로는 분립하여 여러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기도했으며 때로는 다른 민족에게 예속이 되어서 회모와 착취를 당해왔다.

분립과 예속—이것이 우리민족이 밟아온 자취였으며 우리민족이 약소해지고 빈약하게된 원인이었다.

…(중략)…

그런데 지금 조선의 현상을 볼진대 지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울만해도 십여개이상의 정당이 분립하여 혹은 공산주의니 혹은 민족주의니 혹은 민주주의를 제창하고 있다 그리고 삼십팔도 이북엔 소군, 이남엔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아울러 조선 민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향간에는 좋지못한 풍설이 떠돌고 있으며 정당과 진주군

8) 金松(1945), 「머리말(序言)」, 『百萬人의 教師 : 해방된 조선민중의 계몽을 위하여』, 서울: 白民文化社.

에대한 민중의 기대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 이러다가는 우리민족이 밟아온 쓰라린 과거와 진절머리나는 그 무서운 예측의 길을 되풀이 하거나 앓을까 염려된다. 실로 위기에 놓여있다. 이때를 당하여 우리는 오천년 전통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라는것을 자각하고 대조선의 독립은 우리의 힘을한데모아 세워야만 할것이다.⁹⁾

위의 인용문에서 김송은 해방 직후 조선의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는 한편,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유사 이래 조선민족은 분립과 예측의 길을 걸어왔는데,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의한 해방과 38선을 기준으로 한 미소의 남북한 분할 점령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당파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일치단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단일민족으로서의 조선민족과 그러한 조선민족이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우파 민족주의적 입장과 연결된다. 그런데 ‘단일민족’과 ‘고유한 전통과 역사’는 의문시되지 않고 마치 소여로서 주어진 것이 되고 있다. 그것을 묻는 것은 신화적 기원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인용문만으로 그가 1945년 해방 직후의 시점에서 우파 민족주의의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 그의 문학적 활동을 통해, 결국 당시 그에게 그러한 입장이 받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송은 추후 자신의 문학 활동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전면에서 드러내게 된다. 그가 1945년 12월 잡지 『백민』을 창간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일반적으로 『백민』은 해방 이후 민족문학을 중심으로 한 우익 문단의 성립에 단초를 제공한 잡지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김송 역시 “예상치도 않았던 두 개의 진영이 대립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붉은 물결이 출렁거렸

9) 金松(1945), 「삼천만 동포에게 고향」, pp. 53-54. 강조-인용자.

다. …(중략)… 나는 혼란기에 처하여 노골적으로 백의민족을 표현하고 싶어 『백민』이라는 두 글자를 표제로 내세웠던 것”¹⁰⁾이라고 회고하여 좌익에 맞서는 우익 잡지로서 『백민』을 창간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민족문학이 우익 측 문학자나 문학계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문학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쪽은 오히려 좌익 측 문학자나 문학계였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임화와 안함광을 중심으로 한 좌익 측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이념을 축으로 ‘인민문학론’과 ‘계급문학론’을 내세워 민족문학을 구축하고자 하였다.¹¹⁾ 이처럼 좌익 측에서는 민족적 형식과 계급적 내용을 결합한 사회주의 창작방법을 통해 민족문학을 성립하려고 하였던 반면, 우익 측에서는 대체로 민족적 전통이나 민족혼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영토와 혈통을 중심으로 전통과 역사의 단일성을 강조하여 단일민족신화에 기초한 민족문학을 지향하였다. 하지만 당시 문학계가 좌/우로 간단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었고, 그런 점에서 신문·잡지 등의 미디어는 문학계 내부 각 진영의 담론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유력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당시 “잡지는 곧 문학이라는 제도, 그 제도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¹²⁾을 하였던 것이다.

暴惡無比한 人類의 敵은 東西에서 보기 좋게 敗亡하였고 平和를 사랑하는 聯合軍의勝利로 우리三千里江山에는 自由의 꽃이 피었습니다.

지난 半世 그동안 우리는 熾폭한 檢閱의制裁로 mam놓고 雜誌編輯을 할수 없었으며 찍기우고 깎기워서 病身만을 내놓았든것입니다.

10) 강진호(1983), 『한국문단이면서』, 서울: 깊은샘, p. 275.

11) 이에 대해서는 최성운(2015), 『해방기 좌익 문학단체의 성격과 ‘민족문학론’의 전개』, 『국어문학』 58, 국어문화회, pp. 477-498 참고.

12) 김한식(2008), 『『백민』과 민족문학-해방 후 우익 문단의 형성』, 근대문학100년 연구총서 편찬위원회, 『논문으로 읽는 문학사2-해방 후 남한 I』, 소명출판, p. 39.

그러나 오늘날 그놈들은 이땅에서 支配權을 잃고 떼거지로 몰여갔습니다. 맘놓고 쓰시요 자유의 노래를 불으시요.

白民은 大衆의食卓입니다. 文化에 굶주린 讀者여 맘껏 배불리 잡수시요 쓰는것도 自由, 읽는것도 自由, 모-든 것이 自由解放이외다. 그러나 이自由는 朝鮮의 獨立과 建設의 路線에서만 베푸러진것입니다.

階級이없는 民族의平等과 全世界人類의 平和를위해 이땅의 文化는 自由스러이 發展해야할것이며 그것을 달성키위해 白民이 微力이나마 피나살이되기를 바라면서 創刊號를 보내는것입니다.¹³⁾

김송이 창간하고 편집을 맡은 『백민』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백민』의 「창간사」에서는 이 잡지가 스스로 ‘대중의 식탁’을 자임하는 한편, 쓰는 것도 읽는 것도 자유라면서 그러한 자유가 조선의 독립과 건설로 연결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해방이 가져온 자유와 그러한 자유가 읽고 쓰는 행위로 규정되고, 다시 그러한 행위가 조선의 독립과 건설이라는 민족국가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에서 『백민』은 결국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던 셈이다. 물론 이는 『백민』만의 특장은 아니다. 당시 신문과 잡지를 비롯해 출판인쇄 미디어는 대체로 민족국가 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있었다. 『民聲』의 창간사에서 “모름지기 三千萬은 다 함께 팔을 짓고, 우리의 偉大한 祖國을 完全한 獨立國으로 建設하는 이 歷史的 事業에 힘을 애끼지 말자. …(중략)…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 民族의 公明正大한 輿論의 公器가 되고 우리 民族의 活路를 가르치는 指南이 되려한다.”¹⁴⁾고 하였고, 『文學』 또한 창간사에서 민족 해방과 함께 민족문화 수립의 과업에 직면하여 민족문화 건설운동의 기본 강령으로 봉건 잔재의 청산, 일제 잔재의 소탕, 국수주의의 배격 이 세 가지 항목을 들고 나섰다고 하였다.¹⁵⁾ 한편 『新天地』는 자주

13) 「創刊辭」, 『白民』 創刊號, 1945. 12, p. 3. 강조-인용자.

14) 「創刊號를 내면서」, 『民聲』 제1권 제1호, 1945. 12.

적 독립국가 건설을 반제반봉건의 과제와 연결시켜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의 정론성을 견지하면서 대중화 전략의 핵심에 민중 계몽을 놓았다. 그리하여 대중의 삶과 관련된 사회현상이나 사건을 르포 형식으로 제공하여 그들의 현실 이해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유대감을 형성했다. 또한 해방 조선과 전후 세계 체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국제정세와 사상·지식의 동향을 소개해 민주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¹⁶⁾ 다양한 이념과 정치적 노선에 따라 민족국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당시 발간된 잡지들은 도래할 민족국가를 염두에 두고, 바로 그 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인민대중을 동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백민』은 민족적 전통과 역사적 단일성을 축으로 ‘조선민족’을 호명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창간호에서는 독립축성중앙협의회 개최 소식과 이승만의 결의서 전문을 게재하는 한편, 안재홍의 신민주주의론, 그리고 조선공산당격문을 게재하여 당시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정치 집단의 입장을 함께 실었다. 하지만 이승만의 귀국 연설을 소개하는 「全國民은 統一하자」를 실는 등 우파 민족주의 입장을 보다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술거에 관한 사회, 한글 기념일과 한글 노래 등을 소개하는 한편, 신정언의 역사소설 「을지문덕」을 소개하는 등 한글과 역사를 축으로 민족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 보였다. 제2호에서는 김구의 훈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일제에 항거한 안중근, 이덕주, 이봉창, 윤봉길 등을 ‘애국열사의사’로 명명해 그들의 활동을 현창하였고, 백제에 관한 사회를 실었다. 제3호에서는 3.1운동을 회고한 글이나 구한말 친일파를 처단한 내용의 비사(秘史), 훈민정음에 관한 소개

15) 「창간사」, 『文學』 창간호, 1946. 7. 천정환(2014),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 123편 잡지 창간사로 읽는 한국 현대 문화사』, 서울: 마음산책, pp. 67-69.

16) 이에 대해서는 이봉범(2010), 「잡지 『신천지』의 매체 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39,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10, pp. 199-267. 참고.

글을 실는 한편, <사회학설강좌>란을 두어 유물사관을 해설하였다. 창간호에서 3호까지 게재된 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백민』은 해방 직후 정세와 정치적 세력의 강령 등을 소개하는 한편, 한글과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였고, 민족적 전통을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해갔다. 또한, 이 잡지가 문학잡지가 아니었던 만큼 초기에는 별도의 창작란을 두지 않았고, 문학작품 또한 비문학적 글쓰기들과 혼재되어 있었다.

『백민』이 주장한 민족문학이 좌익 측의 계급문학에 대한 대타 개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초기에는 계급적 관점을 드러내기보다는 민족의 분열 자체를 문제 삼는 방식을 취하였다. 초기 좌우익의 대립이 첨예해지기 전에는 완전한 해방, 통일, 좌우 합작 등을 내세웠고, 물론 그것은 혈연과 지연,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이 해방, 통일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족의 강조는 계급에 대한 반대로 나타났고, 문학에서 그것은 계급문학과 대비되는 민족문학을 주창한 것이었다.¹⁷⁾ 1946년과 1947년에 걸쳐 통일정부 수립을 계획했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남북 분할선으로 38선이 획정되어 가는 정세 속에서 1947년 3월 『백민』 7호는 ‘민족문학특집호’라는 제호 아래 해방기 대표적 우익 문학 단체였던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필진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갔다.¹⁸⁾ 이는 『백민』 7호에서 문예중심 종합지를 표방하면서 “政治的 現實에 最大限의 關心을 가질지라도 2作品的 焦點을 역시 政治 아닌 文學에 두는 사람, 純粹(朝鮮的)한 文學人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眞正한 民族文學 樹立을 위해서도 絶對히 要望되는 것이다.”¹⁹⁾라고 하여 소위 ‘순수’

17) 김한식(2008), pp. 44-50.

18) 이민영(2013), 「1947년 남북 문단과 이념적 지형도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회, pp. 431-435 참조.

19) 「文學과 政治」, 『白民』 七號, 1947, 3.

와 ‘민족문학’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호의 『純粹詩의 志向』에서 조지훈이 “純粹詩의 領域은 政治宗教社會 어디에도 갈수있는 無制限이나 다만 詩가 되고 藝術이되는것을 前提로하는 無制限이며 詩의 可能性은 그出發點이 詩에있을때뿐이라는것”²⁰⁾이라고 말했던 것 또한 동궐에 놓인다. 하지만 이처럼 순수와 민족문학을 연결시키는 것이 정치와 문학을 구별시키기는커녕 문학의 정치화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후 남한 우파 문단의 전개 과정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물론 『백민』 7호 ‘민족문학특집호’에 실린 문학작품들이 모두 조선문학가협회의 필진들의 작품은 아니었다. 하지만 단편소설에 한정해서 보자면 8월 15일 해방의 주체성을 은폐하거나 억압함으로써 해방의 경험을 자명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러한 작업은 대체로 서사의 공간 및 자기비판의 과제의 대상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백민』을 중심으로 한 우파 문학자들의 민족문학론은 텍스트의 공간 및 자기비판 과제의 대상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8·15 해방을 탈역사화시켜 자기비판으로 상징되는 문화적 탈식민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던 것이다.²¹⁾ 이러한 우파 문학자들의 자기 테크놀로지의 발현 과정 속에서 『백민』은 민족문학 이념의 도그마가 되어갔던 셈이다. 이처럼 『백민』은 창간 초기에는 정치 지향의 교양잡지를 표방하였으나, 독자층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기 위해 1947년 3월부터 문예 중심으로 잡지 기획의 방향을 변경하면서 절반 이상의 지면을 문학에 할애한다. 이에 따라 김동리, 백철, 이현구 등 전조선문필가협회와 조선청년문학가협회에 가입했던 문인들이나 좌익에 반대하는 우익 문인이 동인으로 참여하게 되고, 유호, 손소희, 박연희 등의 신인들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²²⁾ 그

20) 趙芝薰, 『純粹詩의 志向－民族詩를 위하여－』, 『白民』 七號, 1947, 3, p. 168.

21) 이에 대해서는 유석환(2010), 『한반도의 안과 밖, 해방의 서사들－해방을 둘러싼 기억투쟁과 민족문학(론)의 지정학－』, 『상허학보』 29, 상허학회, pp. 316-321 참고

리고 1946년 4월 4일 김동리를 대표로 하여 결집한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3대 강령²³⁾ 중 하나로 내세워진 것이 ‘민족문학의 세계사적 사명을 완수를 기함’이라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백민』을 무대로 활동한 문학자들의 정치적 지향점은 우파 민족주의로 수렴되었다.

3. 민족적 주체로서의 성장 서사의 딜레마

여기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단독정부 수립 때까지 김송이 주목하고 있는 정치적 현안을 염두에 두면서 『백민』에 게재된 그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백민』에 게재된 김송의 단편소설은 총 13편인데, 이 글에서 주목하는 시기에는 10편이 실렸다. 이 중 창간호부터 3호에 걸쳐 실린 『萬歲』, 『武器 없는 民族』, 『인경아 우러라!』는 연작이므로, 실질적으로는 8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직·간접적으로 해방 이후 남한사회의 정치적 현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²⁴⁾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설이 당대의 정치적 현

22) 진영복(2010), 『해방 후 문화적 본질주의 글쓰기 양상 연구-김동리의 『백민』 활동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6, 한민족어문학회, 2010, p. 398.

23) 청년문학가협회의 3대 강령은 “-, 자주 독립 축성에 문화적 헌신을 기함. -, 민족문학의 세계사적 사명의 완수를 기함. -, 일체의 공식적 경향을 배격하고 진정한 문학 정신을 옹호함.”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식(1996), 『해방 공간 문단의 내면 풍경』, 서울: 민음사, p. 50 참고.

24) <『백민』 게재 김송 소설 목록>

제목	권호(통권)	발간연월일	집필연월일	내용
萬歲	창간호	1945.12.01.	1945.09.02.	독립국가 건설, 민족적 주체의 성장
武器 없는 民族	2호	1946.01.25.		
인경아 우러라!	3호	1946.03.10.	1946.01.	
슬은 이야기	4호	1946.06.01.	1946.04.	식민지 청년 항일운동가의 죽음 애도
안개 속의 마을	5호	1946.10.25.		공창제 폐지, 남녀평등, 여성해방

안을 주제화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적 현안이 소설 창작 이전에 작가의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점, 그리하여 작가가 그것을 서사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언제나 그 흔적들이 남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소설 외부의 것이 소설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이 매끄럽게 봉합되지 않고 언제나 그 균열의 지점을 노출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를 두고 문학과 정치의 길항 관계나 재현 주체와 재현 대상 사이의 거리 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해방 이후 민족문학이 이데올로기적 형식을 자임하는 한 동시에 떠안게 되는 딜레마이기도 했다.

해방 이후 김송 소설의 특징적인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그의 대표작 『무기 없는 민족』이다. 이 소설은 해방 직전 징병되어 일본의 군대 훈련을 받은 조선인 청년이 해방 직후 바로 그 훈련을 통해 단련된 신체를 바탕으로 ‘민족적 주체’로 성장해간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익명의 정치적인 군중들이 정치적인 주체로 부상될 수 있었던 과정이 식민지의 제도와 규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²⁵⁾을 확인하게 한다. 그런데 소설의 주인공 강신행은 일본의 군대 훈련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일본어를 학습했지만, 조선어를 배우지 못해 그의 아버지가 보여준 뼈라의 내용을 해독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우리글을 읽지 못하는 병신!”²⁶⁾이라며 자기를 경멸한 뒤 조선어학회 주

제목	권호(통권)	발간연월일	집필연월일	내용
故郷 이야기	7호	1947.03.01.	1947.01.20.	38선 분할, 경제적 곤궁
波市の女像	10호	1947.09.05.		전설 취재, 여성 수난사
廢人	11호	1947.11.01.		해방 이후 몰락한 건축가
貞任이	12호	1948.01.01.		해방 이후 분단과 여성 수난사
男寺黨	14호	1948.05.01.	1947.09.	정한과 운명의 세계
寒灘	16호	1948.10.01.		38선 월경
달이 뜨면	20호	1950.02.01.	1949.08.	.
달이 지면	22호	1950.05.01.		.

25) 정중현(2012), 『제국의 기억과 전유 : 1940년대 한국문학의 연속과 비연속』, 서울: 어문학사, p. 16.

최의 한글과 역사 강습을 받고, 이를 통해 “조선민족의 위대한 힘과 발전성을 발견”하는 한편 “고상하고 묵중한 인격의 소유자”²⁷⁾가 되기에 이른다. 불과 한 달 남짓 동안의 교육을 통해 그는 자기를 구축한 것이다. 이후 그는 인쇄소 직공으로 근무하면서 인쇄소 노동자들 사이에 임정파와 인공파로 나뉘어 논쟁하는 데 임정파의 논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신탁통치안이 공포되자 종로거리의 민중 시위에 가담하여 신탁통치를 반대하기도 하는 등 해방 조선의 청년 주체로서 자신의 위용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이처럼 『무기 없는 민족』은 강신행으로 대표되는 조선인 청년의 성장담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담은 민족적 주체로의 각성과 발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방을 맞아 일본 군대에서 풀려나자마자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다 다시 잡혀 들어가 일본군에 의해 고초를 겪거나, 거리의 시위대에 가담해 선봉에 섰다가 일본군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을 정도로 민족의식이 투철한 강신행이 신탁통치에 반대하면서 종로 보신각의 인경을 울리는 마지막 장면은 마치 투사와도 같은 그의 면모를 극적으로 부각시킨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민족적 투사로의 성장 과정은 1945년 8월 해방 직후부터 12월 신탁통치안이 공포될 때까지 당시 해방정국의 혼동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급변하는 시세에 맞춰 그는 발전했던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 끊임없이 한 개인을 행동하게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 남한사회의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 자신을 위치시킨 강신행의 행위와 욕망은 마치 인민대중의 그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예컨대 그는 인쇄소 직공들 사이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임정파와 인공파가 대립할 때 임정파의 입장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6) 金松(1946), 『武器 없는 民族』, 『武器 없는 民族』, 서울: 白民文化社, p. 64.

27) 金松(1946), p. 66.

「우리 조선은 반만년의 긴 역사를 갖었으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화 하지 못했고 또한 민족문화도 꽃피지 못했다. 외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전민족이 위축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적으로 발전향상한 연후에 어느 시기에 가서 적합한 민중의 요구하는 국가를 이룰 것이지 오늘 당장 공산제도는 단연될 수 없어! 그것은 마치 쌀밥을 먹는 우리에게 팥만 먹고 살나는 것과 같이 생소한것이야 더욱이 일본압정에서 겨우 빠져난 오늘날 민족적으로 통일치 않고 어떻게 하면 정권을 쥐여 한목 불까하는 야심가들의 정당쌈뿐이니 어찌 독립이 성취할 수 있겠는가?」²⁸⁾

그런데 강신행의 이러한 발언이 이질적인 것은 그가 인쇄소 직공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민족적 주체의 입장에서서 임정파의 논리를 피력했다는 데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의 서술자가 강신행의 행위를 긍정하는 한편, 반대편에서 있는 인공파의 입장을 취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근거 없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데 있다.²⁹⁾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강신행이라는 인물의 말과 행위를 민족적 투사의 그것으로 주조해내면서 해방 이후 우파 민족주의 노선의 정당성과 권위를 강화하고 있다. 독립국가 건설을 염원하는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듯한 강신행의 행위와 욕망이 강조되면 될수록 그의 행위를 가능하게 한 우파 민족주의의 입장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기 없는 민족』에서 강신행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파 민족주의 노선이 어떤 정당성과 권위를 얻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의 말과 행동은 우파 민족주의 노선의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게 되는 환원론적 뒀에 빠진다. 이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강신행의 성장 과정이 우파 민족주의적 입장의 ‘과잉’ 서술 전략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

28) 金松(1946), pp. 77-78.

29) “그러나 인공파의 직공들은 **닷자곶자로** 공산주의 이외에는 노동자를 해방할길이 없다고 역설했다.”(金松(1946), p. 78. 강조-인용자)

하다. 한 개인의 자기 인식과 그에 기초한 성장 과정이 내적 자기 완결성을 지니지 못하고, 소위 정치적 수사를 과도하게 체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강신행의 성장은 그 자체로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신행이 한글과 역사 강습을 받은 계기가 그의 아버지가 보여준 뼈라를 읽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 『무기 없는 민족』에서 뼈라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로써 강신행의 행동의 직간접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³⁰⁾ “거리는 날마다 소란스러웠다. 뼈라가 뿌러지고 포스터-가 눈부쉬게 붙었다. // 전에 뿌러진 뼈라에는 후에 뼈라가 중상하고 후에 들은 뼈라는 그뒤에 뿌러진 뼈라한테 반박을 받는다. 무슨 정당이 생기고 무슨 청년회가 생긴다. 정치엔 가가거겨도 몰으는 치들이 어중이 떠중이 모여선 모다 자기내가 가장 잘나고 우세한 주권을 가지려고 고집하고 다른 정당과 단체를 매도한다. 이려고보니 완전 독립의 최대목표인 통일은 그 거리가 점점 멀어져 분열되어 갈뿐이다.”³¹⁾ 확실히 해방 직후는 그야말로 ‘거리의 정치’의 시대, ‘뼈라 정치’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 단정 수립 전까지 조선의 정치는 정당정치가 의회정치가 아닌 말 그대로 거리의 정치였고, 그것은 ‘혁명의 정치’와 동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거리의 정치가 민족 해방과 더불어 ‘몸의 해방’으로 여겨져, 원초적인 인간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지녔고, 혁명이나 무정부 상태의 카니발적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³²⁾ 그런데 서술자에 의해 그러한 ‘거리의 정치’, ‘뼈라 정치’는 해방 직후 분열의 혼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강신행의 민족주의적 자기 투기가 바로 이러한 혼돈과

30) 정선태(2012), 『뼈라, 매체에 맞서는 매체-해방 직후 소설을 통해 본 뼈라의 정치학-』, 『서강인문논총』 35,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p. 27.

31) 金松(1946), p. 71.

32) 이에 대해서는 천정환(2009),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pp. 55-101 참고.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 그는 내포작가 나아가 김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무기 없는 민족」을 강신행의 민족적 주체로의 성장 과정으로만 읽은 것은 제한적이다. 그러한 성장 과정 그 자체가 우파 민족주의적 입장을 긍정하거나 거기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특히 그러하다. 즉 김송은 해방 직후 조선의 곳곳에 뼈라와 포스터가 붙고 각종 정당 및 청년단체가 생겨 저마다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선취하려고 하는 것을 분열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강신행과 같은 인물을 민족적 주체로 성장시켜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특히, 무산계급의 인민대중, 그중에서도 제국 일본의 식민주의적 폭력을 신체에 각인당한 청년의 열정과 그의 열정을 고취시킨 건국준비위원회나 임정파의 존재를 은연중에 암시하는 서사 전략을 펼쳐 그것을 강화한다. 이쯤 되면 김송의 「무기 없는 민족」은 그 자체로 현실 정치에 대한 김송 나름의 응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김송의 「무기 없는 민족」은 뼈라와 같은 어떤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해방기 조선문학의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자, 이후 문학의 정치화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인용문에서 강신행의 목소리가 이질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송 소설에서 이러한 이질적인 목소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재생」을 들 수 있는데, 이 단편소설은 1946년 5월 27일 군정포고 70호에 의해 성 매매가 불법이 되면서 매춘업에 종사했던 복희가 유곽을 나와 귀향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복희는 15살 때 패가망신한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기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체념한 채 유곽에 홀러들게 된 인물이다. 7년 뒤 그녀는 유곽을 나오게 되면서도 매춘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을 딸자식처럼 키워왔다는 포주 노파의 탄식에 그녀를 측은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패물을 건네줄 정도로 선량한 인물이다. 하지만 소위 매춘 생활을 청산하면서 사회로 나와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초조, 공포와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이후 귀향 기차 안에서 우연히 고향 친구인 정숙을 만나게 되고, 정숙으로부터 소위 여성 해방의 사상에 대해 전해 듣는다. 정숙은 애국부인회 파견으로 지방 강연회에 가던 중 기차 안에서 복희를 만나 복희의 매춘이나 복희 아버지의 인신매매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제국 일본의 악법 탓이었다면서 공창제도 역시 그러하다고 말한 뒤 해방 이후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의 해방과 남녀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처음에는 정숙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복희는 정숙의 웅변과도 같은 말에 점차 감화되어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자각한 뒤 “희망과 재선에 불타는 눈동자로 창밖을 바라보”³³⁾면서 고향으로 향한다.

「난 복희를 동정하는 한사람이야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모든 악법을내여 착취와 박해를 일삼던중, 여성에게 직접 해독을 끼친것이 공창제도 였지, 공창제도는 남성만이 경제권과 정치의 지배권을 갖는다는 봉건적 국가에만 있는 악법이야, 그런데 새조선 건설에 있어선 여성의지위도 남성과 동등으로 취급되며, 선거권 피선거권도 있게마련이야...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여성의해방이 없이는 그목적을 말할수 없다는것을 우리 여성들도 깨달아야 할때가왔어 그리고 우리여성들이 다같이 알아야할것은 남존여비의 동양도덕 즉 고린내나는 유교의악풍을 철저히 없세버려야해요!»³⁴⁾

정숙의 이 웅변조의 말은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유년시절의 친구에게 하는 말로는 어색하다. 특히 복희가 매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인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것은 그녀들의 만남이 우연적이듯,

33) 金松(1948), 「재생」, 『金松短篇集 南寺黨』, 서울: 崇文社, p. 216. 초출은 「안개 속의 마을」, 『白民』 5호, 1946. 10.

34) 金松(1948), p. 214.

이 단편소설의 서사 전개 과정 속에서는 낯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만큼 이 말은 정숙의 말이 아니다. 애국부인회 파견 지방강연회 강사로서의 정숙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인용문에서 공창제도에 대한 비판 및 여성해방의 역설은 서술자, 나아가 김송의 목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복희의 이 귀향서사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단선적인 서사 구조를 통해 해방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희로 대변되는 여성 인물이 불안의식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이 단편소설은 정숙에 의한 복희의 교화를 말하고 있지만, 정숙이 말하고 있는 여성해방이나 남녀평등, 여성의 자주권 등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복희가 기차 안에서 그녀의 웅변조의 말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자기를 인식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에서 복희가 매춘업에 종사했다는 것은 희망과 재생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매매춘이라는 여성 신체에 각인된 상흔-식민의 경험과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그녀의 재생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무기 없는 민족』의 강신행과 『재생』의 정숙의 목소리가 서사적 인과성을 갖지 못하고 내포작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된 이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다. 해방 이후 김송의 소설이 민족적 주체로서의 성장 과정을 통해 교양되는 자를 서사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파 민족주의의 정치적 입장을 긍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그들은 교양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서사 내 성장의 주체가 스스로의 행위와 욕망에 의해 그러한 성장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서술자나 작가에 의해 교양된 상태만이 제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송 소설에서 ‘서술’보다 ‘제시’가 득세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김송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이해하자면, 그들은 ‘성장할 수 없는 자’이다.

강신행이 민족적 주체로의 성장을 달성했고, 복희가 여성 주체로서 자기 구축의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사적 인과성이 없는 만큼 오히려 성장의 불가능을 증거한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역시 그들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다.

물론 해방기 한국문학이 민족=국가라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인민대중을 호명하는 한편, 그들을 민족적 주체로 성장시키는 데에만 전적으로 몰두했던 것은 아니었다. 해방기 한국문학이 민족문학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민족적 내러티브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나 한계의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기도 하였다. 허준은 『잔등』에서 귀환의 과정을 서사화하는 것을 통해 해방기 새로운 시대의 논리로 대변되는 ‘민족의 도덕’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윤리’에 대한 성찰³⁵⁾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채만식은 『소년은 자란다』에서 『잔등』과 마찬가지로 귀환의 과정을 서사화하는 한편 가족의 이산 서사를 펼쳐 보이면서 해방 직후의 ‘해방 없는 해방’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진정한 해방을 위해 교환경제를 넘어선 탈자본적 민족=국가를 상상³⁶⁾하기도 하였다. 사실 문학의 가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민족이라는 이념을 통한 개인의 주체성 확립의 불가능성, 민족=국가의 상상이 지니고 있는 균열의 지점을 성찰하게 하는 데 문학의 역할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방 직후 정치적 혼돈에 직면하여 대체로 민족문학으로서의 자기 갱신에 여념이 없었던 한국문학은 김송의 문학 활동이 상징적으로 드러내듯, 주로 민족적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몰두하였다. 이처럼

35) 신형기(2006), 「허준과 윤리의 문제-『잔등(殘燈)』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7, 상허학회, pp. 171-200.

36) 류보선(2014), 「해방 없는 해방과 귀향 없는 귀환-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 읽기-」, 『현대소설연구』 49, 한국현대소설학회, pp. 175-210.

해방기 김송의 문학 활동을 검토하는 것은 당시 정치적 질서에 기초해 문학의 위상을 규정했던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의 한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4. 이데올로기 형식으로서의 서사

해방기 김송의 단편소설은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 호명되는 인민대중의 성장 과정을 서사화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성장의 불가능성’을 드러낸다. 교양된다는 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성장이 다시 개인의 주체성 확립의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교양되는 자’는 언제나 ‘교양될 수 없는 자=성장할 수 없는 자’를 대상화하거나 타자의 위치에 놓게 마련이다. 또한 그러한 주체화(=타자화)의 양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한 개인의 주체화 과정을 통해 배제되고 소외된 타자들을 짐작하기란 쉬운 일이다. 하지만 해방을 전후한 시기 다채롭고 이질적인 개인들은 국가 권력의 체제(regime) 앞에서 단일한 정체성으로 호명되었고, 그로 인해 마치 모든 개인들이 주체화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되었다. 제국 일본의 충직한 신민(臣民)으로서의 식민지 조선인, 그리고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의 역군으로서의 해방 조선인. 하지만 역사가 증거하듯이, 그것은 광기이거나 허상일 뿐이었다. 김송의 단편소설은 해방기 계몽의 대상으로 상정된 인민대중이 세대, 계층, 지역, 젠더 등에 의해 분화되어 있었음에도 그들을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 호명하면서 단일하고 통합된 존재로 회수하였다. 그리고 문학이 인민대중 교양의 형식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민족문학으로서 재정립해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인민대중의 목소리는 봉쇄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았다.

김송은 앞서 『무기 없는 민족』의 서문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감회를 서술하였다. 그는 조선민족이 36년 동안 제국 일본의 압제 속에서 항상 독립을 꿈꿔왔는데, 그럴 때마다 ‘무기 없는 민족’의 비애를 느꼈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소에 의한 해방과 남북이 좌우로 분열된 현재 역시 무기 없는 민족이 바라는 것은 독립일뿐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소설 창작의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작년 解放의 인경소리를 듣고 흥분과 감격에 못니겨서 나도 政治方面에 나설까했다. 그러나 內面的이고 非妥協의인 내性格으로선 활기있는 政治의 소용도리속에 뛰어들수 없었다. 그보담도 文學을 통해서 人民에게 感情的 影響을 주는품이 政治家의 雄辯에 못지않으리라 생각을 곤처먹고 小説을 쓰기시작했다.”³⁷⁾ 정치계에 입문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좌절되자 문학을 통해 정치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소설을 쓴다는 김송의 이러한 발언은 해방 이후 ‘문학의 정치화’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문학을 통해 인민대중에게 감정적 영향을 주겠다며 소설을 정치가의 웅변에 빗대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데올로기³⁸⁾ 형식으로서의 서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군정 체제 하 민족국가 건설의 열망 속에서 문학은 자연스럽게 정치화의 길을 걷거나 정치와 같은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문학은 이데올로기 형식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재구축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루이 알튀세르는 어떠한 사회도 이데올로기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어떤 우세한 사회 체제 속

37) 金松(1945), 『自序』, p. 2. 아울러 김송은 이 서문에서 자신의 작품을 읽은 독자가 그를 좌우로 구분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작품은 그저 조선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을 반영한 기록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38)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테리 이글턴의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밝혀 둔다(이에 대해서는 테리 이글턴(1994), 여홍상 역, 『이데올로기 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pp. 40-44 참조).

에서 개인을 주체로 정의하는 보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인간이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과 이데올로기가 분리될 수 없다고 본 데서 기인한 것이다.³⁹⁾ 따라서 루이 알튀세르의 견해에 따르자면, 해방기 이데올로기 형식으로서 문학은 개인의 자기 정립과 정체성 구축의 미적 형식이었던 것이다.

한국 근대문학이 그 성립 초기부터 민족≠국가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민족=국가를 강렬하게 지향했고, 그것이 한국 근대문학의 정치적(무)의식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특히 제국-식민지 체제가 제국적 질서 아래 민족≠국가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한국 근대문학은 민족적 내러티브를 내면화하고 그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족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고안했다. 이 ‘민족 로망스’들은 한국 근대문학의 가장 강력한 계열체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개인의 고유한 욕망이나 자율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식민의 체함과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방기 소위 ‘민족의 귀환’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현상 속에서 한국 근대문학은 민족=국가의 이념으로서 민족문학이 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것은 민족국가 건설과 민족문학이 반성적 성찰의 과정 없이 단 하나의 진리 명제로, 혹은 정언명령으로 출현한 당대의 정치적, 문화적 현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각 정치 집단의 헤게모니 선취 과정 속에서 소위 민족 담론의 절대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⁴⁰⁾

그리고 이 민족 담론의 절대화 현상 속에서 개인들은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새롭게 자기 정체성을 정립할 것을 요청받았고, 호명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호명은 인민대중을 교양하거나 성장시켜 민족적 주체로 갱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때 문학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하층민

39) 이에 대해서는 루이 알튀세르(1997), 이종영 역, 『맑스를 위하여』, 서울: 백의 참고.

40) 이에 대해서는 류보선(2012), 『민족≠국가라는 상황과 한국문학의 민족 로망스들』, 『한국문학의 유명들』, 파주: 문학동네, pp. 615-657 참고.

들이 민족국가 건설에 호응해 새로운 자기를 주조하는 성장의 내러티브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누가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성장시키는가, 그는 바로 호명하는 자이다. 이 호명하는 자는 민족 담론을 선취한 자의 위치에서 계몽의 주체로서의 어떤 절대적 목소리를 들려준다. 정언명령으로서의 절대적 목소리는 그러므로 서사 내부에서 인물의 성격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절대적 목소리의 이물감은 서사적 인과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사 밖에서 서사 이전에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김송의 단편소설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 해방기 김송의 문학 활동을 중심으로 당시의 민족 문학이라는 이념이 인민대중을 단일하고 균질한 존재로 호명하였음을 밝힌 것은 민족=국가의 성립을 위한 내러티브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만을 포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를 통해 해방기 다양하게 분기했던 민족(문학)의 이념이 내러티브화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단일한 어떤 것으로 고착되어갔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호미 바바의 말처럼, 민족 국가는 ‘기호의 시각적 동일성과 내러티브의 충일한 시간’⁴¹⁾ 속에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민족’과 ‘국민’을 광범위한 사회적·문화적 내러티브의 내재적 주체이자 객체들로 만드는 문화적 동일시와 담론 작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적·정서적 원천이기도 한 이들 정치적 통일체들이 내러티브로 각인되는 순간의 시간적 차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역사주의가 제시하는 사건과 관념 사이의 투명하고 직선적인 등치 관계에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정한 민족·국민 혹은 특정 국민 문화를 의미하는 재현의 이접적(disjunctive) 형식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요청된다.⁴²⁾

41) 호미 바바(2011), 류승구 역, 『디세미-네이션 : 시간, 내러티브, 그리고 근대국가의 가장자리』, 『국민과 서사』, 서울: 후마니타스, p. 463.

42) 호미 바바(2011), p. 456.

참고문헌

【자 료】

『民聲』, 『白民』.

金松(1948), 『金松短篇集 南寺黨』, 서울: 崇文社.

_____(1946), 『武器 없는 民族』, 서울: 白民文化社.

_____(1945), 『百萬人의 教師 : 해방된 조선민중의 계몽을 위하여』, 서울: 白民文化社.

박현영(2008), 『조선 인민에게 드림』, 파주: 종합출판 범우(주).

이강국(2013), 『민주주의 조선의 건설』, 파주: 종합출판 범우(주).

朝鮮文學家同盟 中央執行委員會書記局(1946), 『建設期の 朝鮮文學』, 서울: 白楊堂.

【논 저】

강진호(1983), 『한국문단이면서』, 서울: 깊은샘.

김윤식(2006),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1996), 『해방 공간 문단의 내면 풍경』, 서울: 민음사.

_____(1995), 『한국 현대 문학사상사론』, 서울: 일지사.

김윤식·정호웅(2000), 『한국소설사』, 파주: 문학동네, 2000.

김한식(2008), 『『백민』과 민족문학-해방 후 우익 문단의 형성』, 근대문학100년 연구총서 편찬위원회, 『논문으로 읽는 문학사2-해방 후 남한 1』, 서울: 소명출판.

루이 알튀세르(1997), 이종영 역, 『맑스를 위하여』, 서울: 백의.

류보선(2014), 「해방 없는 해방과 귀향 없는 귀환-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 읽기-」, 『현대소설연구』 49, 한국현대소설학회.

_____(2012), 『한국문학의 유명들』 파주: 문학동네.

박지영(2014), 「복수의 ‘민주주의’들-해방기 인민(시민), 군중(대중) 개념 번역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85,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박필현(2010), 「해방기 문학 비평에 나타난 민족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지연(2013), 「해방기 ‘민족’이라는 기호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임화의 ‘민족’, ‘민족문학’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5, 현대문학이론학회.

신형기(2006), 「허준과 윤리의 문제-「잔등(殘燈)」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7, 상허학회.

유석환(2010), 「해방도의 안과 밖, 해방의 서사들-해방을 둘러싼 기억투쟁과 민족문학(론)의 지정학-」, 『상허학보』 29, 상허학회.

이민영(2013), 「1947년 남북 문단과 이념적 지형도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회.

이봉범(2010), 「잡지 『신천지』의 매체 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39,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정선태(2012), 「빠라, 매체에 맞서는 매체-해방 직후 소설을 통해 본 빠라의 정치학-」, 『서강인문논총』 35,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정종현(2012), 『제국의 기억과 전유 : 1940년대 한국문학의 연속과 비연속』, 서울: 어문학사.

진영복(2010), 「해방 후 문화적 본질주의 글쓰기 양상 연구-김동리의 『백민』 활동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6, 한민족어문학회.

천정환(2014),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 123편 잡지 창간사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사』, 서울: 마음산책.

_____(2009),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최성윤(2015), 「해방기 좌익 문학단체의 성격과 ‘민족문학론’의 전개」, 『국어문학』 58, 국어문학회.

테리 이글튼(1994), 여홍상 역, 『이데올로기 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호미 바바(2011), 류승구 역, 『국민과 서사』, 서울: 후마니타스.

원고 접수일: 2016년 6월 24일

심사 완료일: 2016년 8월 8일

게재 확정일: 2016년 8월 11일

ABSTRACT

Ideology of National Literature and Interpellation of Peoples in the Liberation Period

Oh, Tae-Young*

Korean modern literature in liberation period of the so-called phenomenon might be termed 'return of the nation' to escape from the colonial experience and memories were preoccupied in becoming a national literature as ideology of the nation=state. Kim, Song's literatures clearly showed political situations that integrating into a single exist while interpellation subject of the nation-state building people who were differentiated by generation, class, region, gender in liberation period. Interpellation were taken how the renewed as the national subject, literature showed the narrative of growth that the underclass was to establish self identity in response building of nation-state at that time. In this sense, to consider the ideological form of Korean literature in liberation period could be one way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s of the Korean Literature as modern literature=national literature from empire-colonial system to postcolonial-the cold war system.

* Assistant Professor, Dharma College, Dongguk University

